

제25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20년 8월 25일 (화) 오전 11시

제25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장옥례)

○의사팀장 장옥례

(11시 02분 개식)

지금부터 제25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긴 장마에 이은 불볕더위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하루빨리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 적용되고 8월 22일 밤 12시를 기해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올 초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모범 방역 국가로 인정받던 우리나라가 2차 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생활 방역에 적극 동참하셔서 건강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2 (제250회-개회식)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밤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몰고 올 비를 시작으로 내일은 강풍과 함께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폭염과 코로나19, 태풍이라는 삼중고를 민관이 합심되어 거뜰하게 이겨내고 주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 많은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장옥례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폐식)